사육 밀도 높고 이동량 많아 AI 자주 발생

나주·영암 겨울 오리 사육 전면 제한 추진 배경

영암호 등 철새도래지·넓은 평야…오염원 지속 노출

올 겨울 전남 AI 11건 중 6건 나주·영암서 발생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서 겨울철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나주와 영암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전남지역 AI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리 사육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주·영암은 육용 오리 사육 밀도가 높고 계열 농가끼리 사람, 차량 등의 이동량도 많아 AI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주와 영암을 끼고 있는 영암호, 영산호, 영산강 중류에는 철새도래지와 넓은 평야 지대가 있어 철새 서식과 이동에 따른 오염원 노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도 AI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이번 겨울 전남에서 발생한 AI 1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건이 나주(2건)와 영암(4건)에서 발생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방역당국이 육용 오리 사육 밀도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주·영암과 인접한 함평, 무안을 비롯한 곡성, 구례, 보성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겨울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남지역에 대해 특별 방역에 나서는 등 방역 관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전남을 특별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AI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전남도는 입식 단계서부터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육 전 과정을 통제하고 나섰다. 하지만, AI 발생 추이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 전국 가금류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14건 가운데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강진과 장흥에서 동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은 합동으로 전남 특별 방역에 나섰다.

질병관리부장을 단장으로 한 32명의 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은 지난 11일부터 나주 등 주요 오리 사육지역 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 파견단'이 전남 방역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오리농장 신규 입식 신고 처리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신고를 접수해 동물위생시험소 AI 검사 후 농장 점검을 거쳐 승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남도가 직접 관리에 참여한다. 시·군은 입식 신고 접수, 농장 점검 후 내용을 보고해 도의 확인을 받아 승인 처리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은 물론 겨울이 가기까지 AI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면서 "당국의 방역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등학교 석면농도는? 15일 광주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과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비를 이용해 석면을 철거하면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이석환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

이석환 차장검사 오인서 공안부장

법무부는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이석환(54·21기) 청주지검장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2·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는 김영대(53·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을 보임했으며, 역시 공석이던 대검 강력부장에는 고기영(53·23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전보했다.

후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찰출신이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후임자 공개채용을 공고했다.

광주 출신으로 숭일고와 고려대학교 등을 졸업한 신임 이석환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기관과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청주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오인서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수사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서울 출신인 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직무대행 체제 해소와 검사장급 보직축소에 따른 전보 인사로 이뤄졌으며, 별도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없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전면 재검토되나

교육부, 지방선거 뒤 내년 종합대책 발표할 듯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방향을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영어 특별활동 금지 시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영어 특별활동 금지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금지하는 시기를 1년 미룬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물러나서 금지 결정 자체를 보류한다면 사실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보완책 없이 섣불리 들고나온 것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의 경우 애초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 교육이 금지돼 있었다.

여기에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도 영어를 금지해 사실상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 전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방과 후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 당장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치원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고가의 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공개 추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9912만 원이다.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명단 공개 시 임금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연합뉴스

완도수목원, 희귀 곤충 다수 서식

긴방패벌레·등줄갈색날개쐐기 노린재 등

국내 유일 상록활엽수 집단 자생지인 완도수목원에서 희귀 곤충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미기록종인 허리노린재과 곤충이 발견돼 '완도 허리노린재'로 명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실은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공동 발행하는 아태지역 생물 다양성 전문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수목원에서는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고 남부지방에 국지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긴방패벌레도 확인됐다.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던 등줄갈색날개쐐기 노린재도 발견됐다.

완도수목원은 '완도수목원의 노린재목 곤충' 자료집을 발간해 노린재목 곤충 140종의 분포 현황, 특징, 서식지 등을 표본사진과 함께 담았다.

노린재목은 종의 수가 많은 분류군 중 하나로 신종, 미기록종의 추가 발견이 기대된다고 수목원 측은 전했다.

완도수목원은 2016년 나비와 잠자리를 시작으로 버섯, 나방, 야생동물, 자생자원, 노린재까지 모두 6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노린재 자료집이 완도수목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국내 노린재목 곤충 종류와 생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놀분 쓸분 대출
(주)오천경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이자율 :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도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심의번호 : 21719239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종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종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 문평면 옥당리 대지 4,780㎡ 매 6억2천(물류창고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